

中國 河北省北部 “玉皇廟文化” 연구

정 대 영 (한신대학교 학술원)

I. 머리말

II. 주요유적

1. 玉皇廟墓地
2. 葫芦溝墓地
3. 西梁光墓地
4. 龍慶峽墓地
5. 甘子堡墓地
6. 北辛堡墓地
7. 小白陽墓地
8. 白廟墓地
9. 梨樹溝門墓地
10. 炮臺山墓地

III. 考 察

1. 墓制와 葬俗
2. 出土遺物

IV. 年 代

V. 맺음말

국문 요약

中國 河北省北部의 燕山山地와 주변지역은 春秋·戰國시기(B.C770~B.C221年) 北方系青銅文化의 주요 분포지역으로 분류된다. 최근 軍都山일대의 玉皇廟墓地에서 진행된 대규모 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문화성격이 확인되면서 중국학계에서는 이 지역의 문화적 성격을 기존의 주변지역의 청동기문화와는 구별하여 독립적인 문화유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本文에서는 春秋·戰國시기 河北省北部山地일대의 "玉皇廟文化" 관련 유적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墓制와 葬俗 및 출토유물의 특징을 중심으로 옥황묘문화의 성격과 주변지역 청동기문화와의 다원적인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夏家店上層문화와 오르도스청동기문화 및 燕國系중원문화와의 다원적인 형태의 영향관계는 옥황묘문화의 성격과 계기적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상징적 형태의 石槨이 결부된 豎穴式土壙墓, 狗위주의 動物殉葬과 覆面葬俗, 短頸鼓腹罐, 三足雙耳罐, 圓餅形首短劍, 다량의 中原系青銅容器와 銅戈 및 車馬具의 공반현상, 虎形·馬形動物牌飾 등으로 대표되는 특징들은 주변지역 북방계청동기문화와는 구별되는 옥황묘문화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옥황묘문화의 시·공간적 범위는 대체로 주변의 夏家店上層文化와 오르도스청동문화 사이로 설정할 수 있으며, 墓制와 葬俗 및 출토유물에 반영된 고유한 문화적 특징과 주변문화와의 다양한 영향관계를 통하여 볼 때 戰國中期이후 燕文化에 의해 대체된다.

주제어 : 文化類型, 玉皇廟文化, 動物殉葬, 覆面葬俗, 動物牌飾, 北方系青銅文化

I. 머리말

中國 河北省北部的 燕山山地와 주변지역은 春秋·戰國시기(B.C770~B.C221年) 北方系青銅文化(田廣金, 1997)의 주요 분포지역으로 분류된다. 최근 발굴조사의 성과에 의하면 河北省西北部的 張家口地區에서 東北部的 灤平, 隆化지역에 걸쳐 발견되고 있는 春秋·戰國시기 青銅器文化의 성격이 서쪽의 오르도스청동기문화를 비롯하여 남쪽의 燕文化 및 동쪽의 夏家店上層文化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최근 軍都山일대의 延慶縣玉皇廟墓地에서 진행된 대규모 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문화성격이 확인되면서, 중국학계에서는 이 지역의 문화적 성격을 기존의 주변지역의 청동기문화와는 구별하여 “山戎文化”(北京市文物研究所, 1989), 혹은 “玉皇廟文化”(修柱臣, 1992), “北辛堡文化”(林沄, 1995)라는 명칭의 독립적인 문화유형으로 설정하고 있다¹⁾.

이러한 玉皇廟文化에 대한 고고학 연구는 1964년 河北省 懷來北辛堡에서 발견된 2基의 豎穴式무덤에 대한 발굴조사가 그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무덤내부에서는 牛, 馬의 四肢骨과 頭骨의 殉葬 및 “雙環首短劍”, “圓餅形首短劍”과 中原系青銅器 등이 共伴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학계의 주목을 끌지는 못하였다. 이후 1978년 河北省 灤平虎什哈炮臺山에서 유사한 성격의 무덤들이 발견되면서 이를 夏家店上層文化를 계승한 지방유형으로 보는 견해가 제출되었다(河北省文物研究所, 1983). 1980년대에 北辛堡, 虎什哈炮臺山墓地和 동일한 문화적 특징들을 보여주는 유적들이 河北省 北部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굴되면서 옥황묘문화에 대한 고고학연구의 새로운 轉機가 마련되었다. 특히 1985~1990년에 걸쳐 延慶縣玉皇廟, 葫蘆溝, 西梁光등지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된 500여 基의 대규모 무덤자료와 1983년 張家口白廟, 1985년 宣化小白陽 및 1989, 1993년 灤平梨樹溝門墓地에서 진행된 발굴자료를 통하여 河北省北部지역의 청동기문화의 성격을 오르도스청동기문화를 비롯하여 하가점상층문화로 대표되어온 기존의 북방계청동기문화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성격의 문화유형으로 파악하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靳楓毅(北京市文物研究所, 1989)는 동북지역 청동단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南山根유적에서 발견되는 예와

1) 현재 중국학계에서 玉皇廟文化의 명칭과 성격 및 年代, 族屬문제와 관련하여 상이한 견해들이 상존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최근 軍都山玉皇廟墓地에서 발굴 조사된 400여 기의 墓葬자료들이 上記한 문화유형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에서 이를 “玉皇廟文化”로 命名하고자 한다. 물론 국내에는 일부 연구자(吳江原, 1997, 2004; 장인욱, 2004)에 의해 “東南溝類型”, “軍都山類型”이라는 명칭으로 먼저 소개된 바 있으나 平泉東南溝유적의 文化歸屬과 관련하여 필자는 다른 견해(夏家店上層文化의 地方類型)를 가지고 있음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한다.

같은 “曲刃短劍”과 “直刃短劍”이 공반되는 하가점상층문화는 東胡族으로 비정하고 하북성 북부 燕山山地에 분포하는 “直刃短劍”으로 대표되는 문화유형은 “山戎文化”로 비정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修柱臣(1992)도 이들 유적의 族屬을 山戎으로 비정하는 견해에 동의하면서 이를 “玉皇廟文化”로 命名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林沄(1993, 1995)은 長城地帶에 분포하는 古代北方民族 관련유적을 6개의 地域群으로 구분하고 하북성 북부의 燕山地區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문화유형을 “北辛堡文化”로 命名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白狄에 의해 세워진 “代”國에 비정하였다. 또한 韓嘉谷(1994)도 이들 유적을 “代”國으로 비정하는 林沄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이러한 문화특징들을 “桃紅巴拉文化”(오르도스청동기문화)의 지방유형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문화유형의 淵源을 甘青지구 寺窪문화의 東進현상과 관련하여 보는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최근 楊建華(2000, 2003a, 2003b)는 長城沿線의 “青銅文化帶”를 자연환경과 경제유형 및 생활방식을 기준으로 龍山을 중심으로 하는 甘肅寧夏地區와 오르도스고원과 岱海를 중심으로 하는 內蒙古地區 및 桑乾河와 燕山을 중심으로 하는 冀北地區(河北省北部)로 분류하고 冀北地區 청동기문화의 성격과 年代 및 族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²⁾.

本文에서는 春秋戰國시기 河北省北部 燕山山地일대의 “玉皇廟文化” 관련 유적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墓制와 葬俗 및 출토유물의 특징을 중심으로 옥황묘문화의 성격과 다양한 문화요소들에 반영된 주변지역 청동기문화의 다원적인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喀左南洞溝, 園林處, 凌源三官甸, 五道河子에서 출토된 雙耳罐, 圓餅形首短劍, 虎形馬形動物牌飾의 예와 같이 大凌河流域 비과형동검관련 유적에서 발견되는 玉皇廟文化의 努魯儿虎山以東으로의 東進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행연구로써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II. 주요유적

현재 발굴 조사된 玉皇廟文化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隆化縣三道營駱駝梁, 灤平縣窪上, 尚子溝(鄭紹宗, 1984), 梨樹溝門(灤平縣文管所, 1994; 灤平縣博物館, 1995), 虎什哈炮臺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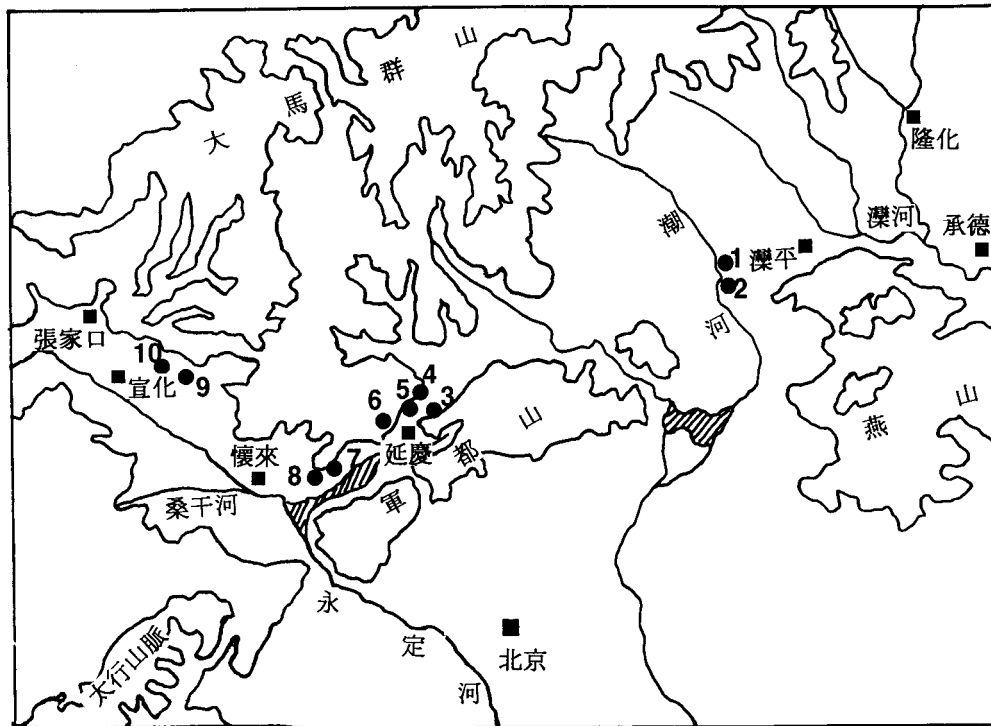
2) 楊建華는 먼저 玉皇廟文化의 출토유물에 반영된 지역적 특징을 기준으로 張家口地區를 중심으로 하는 西部유형과 懷來, 延慶을 중심으로 하는 中部유형 및 灤平, 隆化를 중심으로 하는 東部유형으로 다시 세분하고 주변지역 청동기문화 출토 유물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옥황묘문화와 오르도스청동문화, 燕文化, 하가점상층문화와의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옥황묘문화의 년대와 분포범위를 하가점상층문화와 오르도스청동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유형으로 설정하였다.

(河北省文物研究所, 1983), 延慶縣玉皇廟, 葫蘆溝, 西梁光(北京市文物研究所, 1989; 1990; 靳楓毅, 1991; 2001), 龍慶峽(北京市文物研究所, 1994), 懷來縣甘子堡(賀勇劉建中, 1993), 北辛堡(河北省文物局, 1966), 張家口地區宣化小白陽(張家口市文管所, 1987), 龐家堡白廟(張家口市文管所, 1985)유적들이 보고 되어 있다(표 1, 그림 1).

1. 玉皇廟墓地

<표 1> 玉皇廟文化主要基地의 副葬品組合表

地 域		懷來-延慶盆地					灤平, 隆化地域				張家口地區		
副	墓 地	玉皇廟	葫蘆溝	西梁光	龍慶峽	甘子堡	北辛堡	駱駝梁	苜子溝	梨樹溝門	炮臺山	小白陽	白廟
	葬 品												
土 器	陶 豆	√	√										
	折 肩 罐	√	√							√			
	短頸鼓腹罐	√			√					√		√	√
	三足雙耳罐	√								√			√
	雙 耳 觀												√
	燕 式 陶 器										√		
青 銅 容 器		√		√	√	√				√			
銅 鍍		√				√	√						
銅 戈		√				√	√			√			
車 馬 具		√		√	√	√				√			
銅劍	雙環首短劍	√	√		√	√	√	√	√	√		√	
	圓餅形首短劍	√				√	√			√		√	√
	秦 式 劍					√		√					
銅刀	齒 柄 刀							√		√		√	
	環 首 刀	√	√						√	√		√	
	削 刀	√			√		√			√			
帶 鈎		√		√	√	√			√	√	√	√	
帶 扣		√				√							
動物 牌飾	虎 形 牌 飾	√				√			√			√	
	馬 形 牌 飾	√			√					√		√	
	動物牌飾(狗, 鹿)	√				√						√	
銅 管		√		√	√		√		√		√		



〈그림 1〉 玉皇廟文化墓地分布圖

1. 梨樹溝門墓地, 2. 炮臺山墓地, 3. 葫蘆溝墓地, 4. 西梁堖墓地, 5. 龍慶峽墓地, 6. 玉皇廟墓地,
7. 甘子堡墓地, 8. 北辛堡墓地, 9. 白廟墓地, 10. 小白陽墓地

玉皇廟墓地는 北京市 延慶縣 靳家堡鄉 玉皇廟村에 위치하고 있다. 1986년에서 1991년까지 4회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408기의 墓葬과 2萬점 이상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墓地는 軍都山 南斜면의 해발고도 550~530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墓地는 동서 225m, 남북110m로 전체면적은 24,750㎡이다. 무덤은 대체로 경사면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 보고지는 무덤의 배치상태에 따라 전체 墓地를 北區, 西區, 南區로 3분하고 있다. 무덤의 장축방향은 대부분 東西方向이며, 일부 小型墓의 경우 南北方向을 하고 있다. 무덤은 豎穴式土壙墓이며 墓壙의 평면형태를 기준으로 抹角梯形, 凸字形, 曲尺形, 長方形으로 4분류하였는데, 長方形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葬具는 대부분 무덤에서 木槨으로 추정되는 木質葬具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상징적인 형태의 石槨 및 木槨과 石槨이 결합된 형태도 발견된다. 葬具와 被葬者의 신분관계에 대해서 보고지는 출토유물에 근거하여 木槨이나 木槨에 상징적인 石槨이 결합된 형태를 높은 신분계급의 무덤으로 보았다. 玉皇廟墓地에서는 動物殉葬의 葬俗이 성행하였는데, 전체 墓葬의 62.75%에 해당하는 251기의 무

덤에서 動物殉葬이 확인되었다. 動物殉葬에는 주로 馬, 牛, 羊, 狗 등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狗를 단독으로 動物殉葬한 예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이어서 羊, 牛, 馬의 순서로 발견된다. 動物殉葬의 方式은 대체로 四肢를 해체하여 머리와 다리부분만을 墓壇의 覆土, 혹은 피장자의 頭部上方이나 木槨의 蓋板上에 집중적으로 부장하였다. 또한 피장자의 面部에서 발견되는 銅扣에서 麻布類의 紡織物흔적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覆面葬俗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전체 무덤의 49.25%에 속하는 197基의 무덤에서 확인되었다. 銅扣는 대체로 1~3枚정도이며, 주로 피장자의 兩眼, 혹은 코 끝과 上頷骨사이, 또는 이마부분에서 발견되었다.

부장품은 대체로 木槨내부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土器는 주로 피장자의 頭部부근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靑銅短劍과 銅刀, 銅錐管 및 帶鉤, 帶扣 등은 腰部 혹은 腰部的 좌우 양쪽에서 발견되고 있다. 다만 靑銅容器的 경우에는 고정적이고 규칙적인 부장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銜, 鑣, 節約, 銅泡 등의 車馬具는 피장자의 다리 內外側의 最上段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부장품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부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토유물은 특히 토기와 청동기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특징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토기는 대체로 砂質紅褐陶와 泥質灰陶로 분류되는데, 초기단계의 무덤에서는 砂質紅褐陶의 출토빈도가 우세하며 후기단계에서는 泥質灰陶가 주도적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砂質紅褐陶는 대체로 手制의 無紋이며, 器種은 주로 短頸平底罐이며 器形도 매우 간단하다. 泥質灰陶의 경우 대부분 輪制이며, 주로 折肩罐과 高領壺가 대표적 器種이다. 청동기에 반영된 특징들은 유적의 문화적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靑銅容器는 대체로 鼎, 壺, 敦, 匕, 斗, 盤, 匜 등의 燕國系의 中原文化에 속하는 器物群과 銅鍔, 獸耳三足杯 등의 北方系靑銅器로 대별되며, 이러한 靑銅容器는 대체로 2号墓(YYM2)와 18号墓(YYM18)같은 대형 무덤에서 출토된다. 靑銅兵器는 주로 銅戈, 銅鏃, 靑銅短劍 등이 출토되었으며, 直刃 형태의 匕首式靑銅短劍은 85基의 무덤에서 각각 1점씩 발견되었는데 대체로 길이는 22.5~30cm정도이며 劍身, 劍格, 劍柄, 劍首의 4부분이 通體로 連鑄된 것이다. 특히 劍柄과 劍首부분에 다양한 寫實的動物紋과 幾何紋이 장식되어 있어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매우 특징적이 요소이다. 그 외 中原式銅戈는 모두 4점이 출토되었으며, 銅刀는 모두 137점이 출토되어 型式의 변화가 다양하고 토기 및 청동단검과 共伴되는 예가 많아 分期研究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靑銅帶具는 주로 帶鉤, 帶扣, 帶飾 등이 출토되었으며, 帶鉤는 주로 馬, 羊, 蛙 등의 사실적 동물과 飛禽 등의 造形으로 생동감 있고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帶飾은 주로 馬形, 鹿形, 羊形 등의 造形으로 제작되었는데 馬形의 출토 예가 가장 많다. 玉皇廟墓

地에서 출토되는 이러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帶鉤와 帶飾은 주변지역 청동기문화와는 구별되는 특징적인 요소이다. 上記한 바와 같이 玉皇廟墓地는 현재까지 軍都山일대의 懷來-延慶盆地에서 조사된 동일 유형의 유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출토유물이 가장 풍부한 유적으로 제반 문화요소와 출토유물의 양상이 전체적으로 동일 유형 유적들을 대표할 수 있는 풍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葫芦溝墓地

葫芦溝墓地는 北京市 延慶縣 古城村에 위치하고 있다. 1985년과 1986년에 걸쳐 150여기의 무덤이 발굴조사되어 30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墓地는 軍都山脈 南斜面의 해발고도 570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墓地는 南北의 두 개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고 모두 小型의 豎穴式土壙墓이다. 무덤의 장축방향은 대체로 東西方向이며, 일부 南北방향의 무덤들은 南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葬具를 갖추지 않고 있고 별도의 부장품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대다수 무덤에서 木棺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靑銅短劍이 부장된 무덤에서는 木槨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전체 1/5정도의 무덤(모두 長軸方向이 東西방향)의 경우 피장자의 面部에서 1~3매 정도의 銅扣와 麻布흔적이 발견되어 覆面葬俗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주목되는 점은 장축방향이 南北방향인 무덤에서는 覆面葬俗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덤의 覆土에서 牛, 羊, 狗의 頭骨과 大腿骨이 발견되어 動物殉葬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주로 狗의 頭骨과 四肢를 사용하고 馬을 사용한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일부 무덤에서 발견되는 動物殉葬의 경우 동물의 頭骨과 大腿骨이 覆土가 아닌 墓壙의 바깥부분에서 무더기로 발견된다는 것과 일부 무덤 사이에서도 公用의 獸骨더미가 발견되었다. 부장품은 기본적으로 玉皇廟墓地와 유사하며 靑銅容器와 車馬具는 발견되지 않았다.

3. 西梁光墓地

西梁光墓地는 北京市 延慶縣 古城村에 위치하고 있으며, 葫芦溝墓地에서 西南방향으로 800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1987년에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18기의 豎穴式土壙墓가 발견

되었다. 무덤의 장축방향은 대체로 東西방향이며 일부 무덤에서 木槨흔적이 발견되었다. 일부 무덤에서는 피장자의 面部에서 銅扣가 발견되어 覆面葬俗이 존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무덤의 覆土에서는 牛, 狗, 馬의 頭骨과 大腿骨을 사용한 動物殉葬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M5, M25와 같은 다량의 부장품이 출토된 무덤에서는 모두 馬을 사용한 動物殉葬이 발견되었다. 부장품은 대체로 葫芦溝墓地에서 출토된 예와 유사하며 다만 銅豆등의 靑銅容器와 銅戈, 馬具 및 金銅制의 장신구들이 발견되었다.

4. 龍慶峽墓地

龍慶峽墓地는 北京市 延慶縣의 龍慶峽地域에 위치한다. 1994년 발굴이 진행되어 모두 12기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墓地는 산 아래 沖積臺地에 입지하고 있으며 모두 長方形의 豎穴式土壙墓이다. 무덤의 장축방향은 대부분 東西方向이고 葬具는 木棺으로 추정되는 木質흔적이 발견되었다. 대형 무덤으로 분류되는 3기의 무덤(M29, M30, M32)에는 川石을 사용하여 象徵적인 형태의 石槨을 축조하였으며, 覆土에는 層層이 獸骨이 발견되었다. M30의 경우, 上層에는 馬, 牛, 羊, 狗의 頭骨과 下頷骨이 산재하고 있으며 下層에는 4개의 馬頭骨과 頭骨주위에는 200매 정도의 貝幣가 발견되었다. M32는 合葬墓의 형태로 北辛堡M1, M2에서 발견된 陪葬의 예와 유사하다. 특히 M32에서 출토된 金銅馬牌飾은 목과 꼬리 및 말발굽의 각 부위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들은 기존 馬牌의 일반적 造型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M30 獸骨層 아래에서 발견된 銅鼎, 銅舟 등의 靑銅容器와 匕首式靑銅短劍 2점 및 靑銅刀子, 馬具, 金銅制裝飾品이 발견되었다.

5. 甘子堡墓地

甘子堡墓地는 河北省 懷來縣 甘子堡村에 위치하고 있다. 1980년 21기의 무덤이 발견되었으나 정식 발굴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후에 1373점의 출토유물이 회수되었다. 墓地는 黃土臺地上에 입지하며 무덤의 형태는 모두 長方形의 豎穴式土壙墓이다. 무덤의 장축방향은 東西방향이며 南北으로 배치되어 있다. 葬式은 대체로 直肢葬이며, 일부 屈肢葬의 예도 발견되었다. 墓壙의 覆土에서는 馬, 牛, 羊, 狗의 獸骨이 발견되었으며, 木棺으로 추정되는 木質흔적도 발견되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청동제품으로 모두 1255점이 출토

되었으며 中原系유물로 분류되는 靑銅容器 31점(銅鍔 1점), 銅戈 6점이 발견되었으며, 청동단검 12점, 靑銅刀子 11점, 車馬器 68점, 청동장식품 922점, 金制장식품 15점이 출토되었다. 甘子堡墓地에서는 대체로 燕과 中原系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며 한편 이로써 1957년 甘子堡村에 발견된 청동예기 3점(鼎, 壺, 孟姬匱)이 80년에 발견된 墓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北辛堡墓地

北辛堡墓地는 河北省 怀來縣 北辛堡村에 위치하고 있다. 1964년 4기의 무덤이 발굴되어 그 중 2기(M1, M2)에 대한 발굴자료가 보고되었다. 한편 발굴과 함께 주변에서 모두 14기의 무덤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이 일대가 무덤이 밀집된 墓地임을 알 수 있다. 第1号墓(M1)는 狹長形의 豎穴式土壙墓이며 무덤의 장축방향은 東西방향이다. 墓壙의 벽면은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木槨의 상부에서 動物殉葬에 사용된 馬, 牛, 羊의 頭骨, 四肢骨과 함께 車馬器, 銅戈등이 발견되었다. 葬具는 一槨一棺형태이며 木槨의 西南部에 2개의 附棺을 설치하였다. 陪棺에는 각각 1인이 殉葬되어 있으며, 腰部에서 靑銅帶鉤, 靑銅短劍, 环首刀가 발견되었다. 또한 木棺의 상부에도 1인이 四肢가 해체된 상태로 순장되었다. 출토유물은 모두 357점으로 燕과 中原系유물인 鼎, 壺 등의 靑銅容器 6점, 銅戈 1점, 車馬器 191점과 靑銅短劍 2점과 銅鍔(보고서에는 豆形器) 1점 출토되었다. 第2号墓(M2)는 1号墓의 西南 12m 지점에 위치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두 개의 木棺이 안치되어 있다. 규모가 큰 목관이 主棺에 해당하며 작은 크기의 목관은 陪棺에 해당한다. 출토유물은 모두 2066점으로 靑銅容器와 靑銅短劍은 출토되지 않았으며 動物殉葬의 형태는 대체로 1号墓와 동일하다.

7. 小白陽墓地

河北省 宣化縣 李家堡鄉 小白陽村에 위치하고 있다. 1985년에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모두 48기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墓地는 모두 小型墓로 이루어져 있으며 灤平 梨樹溝門墓地에서 발견되는 예와 같은 中大型墓는 발견되지 않는다. 무덤은 豎穴式土壙墓이며 무덤의 장축방향은 모두 東西방향이다. 頭向은 東向과 西向이 모두 나타나며 東向인 예가 다수를 차지한다. 모두 7基의 무덤에서 木質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모두 9基의 무덤에서 牛, 馬의 頭骨과

大腿骨이 발견되었는데 頭骨은 피장자의 頭部부근에서 大腿骨은 피장자의 다리부분에서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罐, 壺, 鉢 등의 土器類와 青銅短劍, 刀子, 斧, 帶鉤, 動物牌飾 등의 청동제품 및 각종 장식품이 출토되었다.

8. 白廟墓地

河北省 張家口市 龐家堡區 白廟鄉 白廟村에 위치하고 있다. 墓地는 燕山山脉의 南面臺地上에 입지하고 있다. 1983년에 25기의 무덤이 발굴 조사되었다. 보고자는 文化層의 層位와 출토유물을 기준으로 유적을 모두 다섯 개의 類型으로 분류하였으며 第3類型과 第4類型으로 분류된 무덤들이 玉皇廟文化단계에 속한다. 第3類型에 속하는 4기의 무덤(M2, M3, M20, M23)은 豎穴式土壙墓이며 모두 木棺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M20, M23은 壁龕이 설치되어 있다. 부장품은 주로 陶罐 등의 토기류이며 대부분 壁龕에서 발견되었다. 토기는 주로 砂質陶와 泥質陶로 분류된다. 砂質陶는 雙耳罐과 三足雙耳罐이 대부분이며 泥質陶는 豆, 盆, 折肩罐 등이 발견되었다. 第4類型에 속하는 무덤은 모두 12기가 발굴 조사되었다. 모두 豎穴式土壙墓이며 무덤의 장축방향은 대체로 東西방향이다. 일부 무덤(M1, M25)에서는 木棺의 주위에 川石을 사용하여 상징적인 형태의 석곽을 축조하였으며 4기의 무덤에서는 壁龕이 발견되었다. 한편 모두 5기의 무덤에서 羊, 狗의 頭骨이 발견되었다. 부장품은 주로 토기류와 青銅帶鉤 및 鐵刀 등이 출토되었으며 토기는 모두 泥質陶에 속하는 것으로 陶罐類가 다수를 차지하며 일부 壺, 杯, 盂, 豆, 簋 등의 器種도 출토되었다.

9. 梨樹溝門墓地

河北省 灤平縣 虎什哈鎮 營坊村에 위치하며 炮臺山墓地와는 3.5km의 거리에 위치한다. 1990년,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100여 기의 무덤이 발견되었으나 대부분이 이미 파괴된 상태였다. 1989년에 26기의 무덤에 대해 발굴이 진행되어 84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1993년에는 30여기의 무덤에서 4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墓地는 산 斜面의 東, 南, 西面에 걸쳐 부채꼴로 형성되어 있으며, 斜面의 上部에 위치한 무덤들은 대체로 장축방향이 東西방향이며 下部의 무덤들은 南北방향이다. 무덤은 대부분 豎穴式土壙墓이며 1기의 무덤에서 상징적인 석곽형태가 발견되었으며, 葬具로 대부분 목관을 사용

하였다. 動物殉葬은 1990년 발굴조사가 진행된 東西面의 8基 무덤 가운데 모두 7基의 무덤에서 獸骨이 발견된 것에 비해 1993년 南面에서 발굴조사된 30여기의 무덤 가운데 절반 정도에서만 動物殉葬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動物殉葬에 사용된 동물은 대부분 牛, 狗, 馬이며 牛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狗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2/5정도의 무덤에서 覆面葬俗으로 추정되는 麻布흔적과 銅扣飾이 面部의 각 부위에서 발견되었다. 출토유물은 주로 砂質紅褐陶의 壺, 罐, 鉢와 청동단검, 靑銅刀子, 銅戈 등의 靑銅武器類 및 다양한 형식의 帶鉤, 鳥形牌飾, 馬形牌飾 등의 장식품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인접한 炮臺山墓地에서는 주로 中原系유물이 다수 출토된 것과 대조적으로 梨樹溝門墓地에서는 대부분 청동단검과 靑銅刀子, 動物牌飾 등의 北方系靑銅器가 발견되었다.

10. 炮臺山墓地

河北省 灤平縣 虎什哈鎮 炮臺山에 위치하고 있다. 1979년에 35기의 무덤이 발굴조사되었다. 墓地는 山의 西斜面에 입지하고 있다. 무덤은 모두 豎穴式土壙墓이며, 대부분 木棺의 葬具를 사용하였다. 무덤의 장축방향은 25基는 東西방향이며 10基는 南北방향이다. 動物殉葬의 흔적이 발견된 예는 모두 5기에 불과하며 주로 狗를 사용하였으며, 馬과 牛는 부수적으로 附加되었다. 즉 M28의 경우, 9마리의 狗와 한 마리의 牛가 解肢된 상태로 覆土에서 발견되었는데 특히 上·下層으로 분리하여 上層에는 狗의 頭骨만을 순서에 맞춰 배열하고 下層에는 牛의 頭骨과 四肢 및 狗의 頭骨을 木棺의 上部에 부장하였다. 출토유물은 대체로 敦, 東周式銅劍, 銅戈, 刀幣, 陶豆 등의 燕과 中原系유물이 발견되었다.

III. 考 察

上述한 유적들은 대체로 지역과 시기에 있어서 인접한 주변의 夏家店上層文化와 오르도스청동문화 사이에 설정할 수 있으므로 墓制와 葬俗 및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은 옥황묘문화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과 주변문화와의 영향관계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다수의 中原系靑銅器가 共伴되는 특징이 보여주고 있어 옥황묘문화의 편년연구에도 중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1. 墓制와 葬俗

上述한 유적들에서 발견되는 무덤형식은 대부분 長方形의 竪穴式土壙墓이며, 주로 中大型무덤의 경우에는 木棺槨형태의 葬具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나 葫芦溝墓地和 小白陽墓地的 예와 같은 대다수의 小型무덤에서는 木棺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木棺槨의 비율은 대체로 출토유물에 반영된 燕과 中原系文化因素의 비율과 正比例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甘子堡墓地的 경우처럼 中原式 青銅容器的 출토빈도가 높고 말을 動物殉葬에 많이 사용한 墓地일수록 木棺葬具의 발견 예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한편 玉皇廟墓地(M52, M395), 龍慶峽墓地(M29, M30, M32), 梨樹溝門墓地(M8), 白廟墓地(M1, M25)에서 발견되는 일부 무덤에서는 墓壙의 바닥 부분이나 목곽의 주위에 塊石이나 조각들을 이용하여 상징적인 형태의 石槨을 축조하였는데, 梨樹溝門M8의 예와 같이 墓壙의 상부에 다듬어지지 않은 여러 枚의 자연괴석들을 사용하여 길이 3m, 넓이 1.5m의 덮개부를 1層 축조하거나 玉皇廟M395의 예와 같이 墓壙의 바닥 주위를 1~3層에 걸쳐 높이 40cm에 이르는 장방형의 棺室을 축조하는 형태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식의 상징적인 石槨은 大型무덤이나 부장품의 수량이 많은 무덤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어 피장자의 사회적 신분등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상징적인 형태의 石槨은 石棺墓를 기본墓制로 하였던 赤峰地區의 夏家店上層文化의 일부 석관묘에서 발견되고 있어 옥황묘문화에서 발견되는 상징적인 형태의 석곽구조는 하가점상층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일부 대형무덤에서는 附棺시설도 발견되고 있는데, 北辛堡M1의 예와 같이 一棺一槨의 무덤구조에 木槨의 西南部에는 2개의 附棺시설이 南北으로 배치되어 있다. 특히 附棺내부에서 발견되는 殉葬인골은 모두 俯身葬의 葬式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葬式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덤의 長軸방향은 대체로 東西방향과 南北방향으로 구분되는데 대다수 무덤의 長軸 방향을 東西방향이다. 玉皇廟墓地的 예와 같이 발굴조사가 진행된 전체 408기의 무덤 가운데 399기 무덤의 長軸방향이 모두 東西방향이며, 炮臺山墓地에서는 35기의 무덤 가운데 25기의 무덤이 東西방향이다. 그러나 무덤의 長軸방향이 주로 南北방향의 무덤으로 구성된 葫芦溝墓地, 梨樹溝門墓地, 炮臺山墓地는 출토유물에서 燕과 中原系文化要素들이 많이 반영되는 後期の 墓地이거나 동일 墓地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속하는 무덤으로 戰國시기 燕國系무덤의 장축방향이 대부분 南北방향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玉皇廟文化의 墓地들이 일반적으로 北高南低의 山斜面을 따라 규칙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에서 斜面의 하단부에 조성된 墓域이 상단부나 정상부에 조성된 墓域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葫蘆溝墓地, 梨樹溝門墓地에서 발견되는 長軸 방향이 南北방향인 무덤들은 모두 斜面의 下段部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결국 이러한 長軸방향의 변화는 上述한 바와 같이 전국시기 燕國系 문화요소의 영향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玉皇廟文化유적의 상대적인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³⁾.

動物殉葬과 覆面葬俗은 玉皇廟文化관련 유적에서 발견되는 가장 특징적인 埋葬習俗으로 動物殉葬의 경우 주로 馬, 牛, 羊, 狗 등의 가축이 사용되었다. 動物殉葬에 사용된 동물의 종류는 墓地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軍都山일대와 炮臺山墓地에서는 주로 狗를 사용한 반면 梨樹溝門墓地的 경우에는 주로 牛를 사용하였다. 특히 馬를 殉葬한 예는 주로 대형무덤에서 발견되며, 葫蘆溝墓地和 같은 小型墓위주의 墓地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動物殉葬은 먼저 가축의 四肢를 해체하고 가축의 전체부위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上膊骨의 일부 부위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중대형의 무덤에서는 동물의 머리와 腿骨부위의 조합형태로 부장되었으며, 소형무덤에서는 머리 혹은 腿骨 부위만을 부장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動物殉葬은 長城沿線의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葬俗으로 오르도스지역과 하가점상층문화의 무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⁴⁾. 순장방식은 주로 墓壙의 覆土에 집중적으로 부장하는데 炮臺山M28, 玉皇廟M250, 龍慶峽M30등의 대형무덤의 경우에는 覆土에 上·下層으로 나누어 부장하며, 주로 上膊部가 하층에 頭骨이 상층에 부장되는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木槨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체로 목곽의 덮개 판중앙부에 집중적으로 부장하였다. 전체 墓地에서 動物殉葬의 흔적이 발견된 무덤의 비율은 대체로 무덤의 규모 및 부장품의 수량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중대형무덤의 비율과 청동용기 및 부장품의 수량이 많은 墓地일수록 動物殉葬의 비율과 動物殉葬에 사용된 동물의 종류도 높게 나타나는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上述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動物殉葬은 玉皇廟文化사회에서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 및 貧富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炮臺山墓地的 경우처럼 燕國系文化因素의 비중이 높고 무덤의 長軸방향이 주로 南北방향을 나타내는 後期무덤에서는 動物殉葬의 비중이 비례하여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3) 현재 戰國시기의 대표적인 燕國무덤으로 인식되고 있는 賈各莊墓地(安志敏, 1953), 懷來城北墓地(北京市文物工作隊, 1962)의 경우 무덤의 장축방향은 기본적으로 남북방향이다.

4) 動物殉葬은 동북지역뿐만 아니라 長城地帶을 따라 분포하는 여러 유형의 북방계 청동기문화에서도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매장풍속이며 지역에 따라 동물의 종류와 사용부위들이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楊建華, 2002). 하북성 북부(옥황묘문화)는 주로 犬과 牛가 사용된 것에 비해 내몽고 서부의 岱海지역(毛慶溝文化)과 寧夏 중남부의 固原지역(楊郎文化)은 羊이 사용되었으며 오르도스지역(桃紅巴拉文化)은 대부분 馬가 사용되었다. 사용부위는 頭骨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에 따라 하북성 북부지역은 四肢骨과 頭骨이 함께 사용되는 것에 비해 다른 지역에서는 蹄骨과 頭骨이 함께 사용되었다. 한편 내몽고 동남부지역에서 발견되는 獸骨은 牛, 羊, 犬, 猪, 鹿 등으로 다양하며 주로 犬과 羊의 上膊骨이 사용된 것에 비해 요동지역과 길림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돼지 齒牙뼈만이 단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표 2> 玉皇廟文化의 동물순장의 유형과 주변지역과의 비교

文化類型	玉皇廟文化	毛慶溝文化	桃紅巴拉文化	楊郎文化	夏家店上層文化
種 類	馬, 牛, 羊, 狗(狗, 牛위주)	馬, 牛, 羊, 狗, 鹿, 猪(羊, 牛위주)	馬, 羊(馬위주)	羊, 牛, 馬(羊위주)	牛, 羊, 狗, 猪, 鹿(狗위주)
사용부위	頭骨, 腿骨, 蹄骨	頭骨, 蹄骨	頭骨, 蹄骨	頭 骨	頭骨, 下顎骨, 上膊骨
殉葬位置	覆土	覆土	覆土	覆土, 底部	覆土, 石棺내부

覆面葬俗은 피장자의 顔面部의 눈과 코 부위에서 발견되는 보통 1~3枚의 銅扣와 麻布흔적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覆面葬俗은 대체로 玉皇廟, 墓地, 葫蘆溝墓地, 西梁堖墓地, 梨樹溝門墓地등의 東部지역에서 모두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覆面葬俗은 先行하는 하가점 상층문화의 일부 무덤에서 발견되는 예를 제외한다면 주로 河北省北部의 燕山山地에서만 발견되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⁵⁾. 특히 葫蘆溝墓地的 경우 覆面葬俗은 長軸방향인 동서방향인 무덤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炮臺山墓地, 甘子堡墓地和 같은 燕國系문화요소의 비중이 높은 後期무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러한 覆面葬俗이 先行한 하가점상층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체로 옥항묘문화 초기에만 나타나는 시기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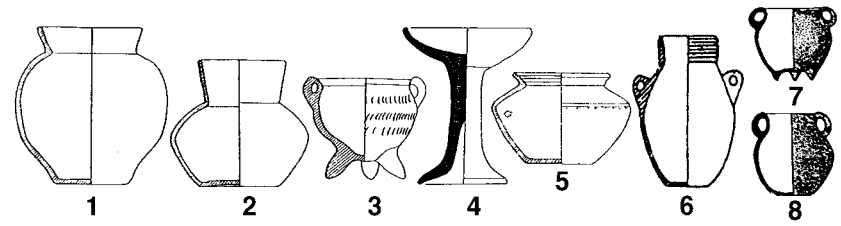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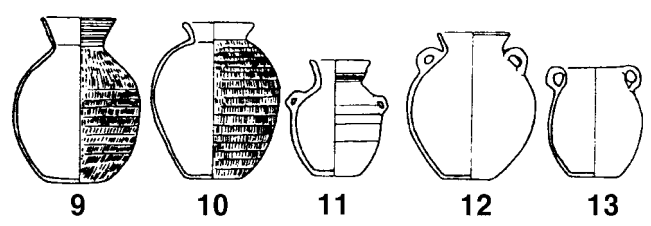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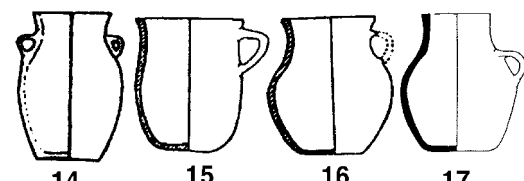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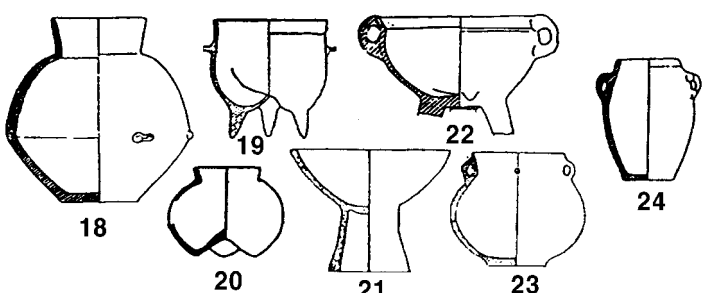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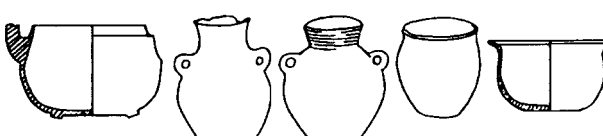
2. 出土遺物

(1) 土器(그림 2)

토기는 砂質紅·褐陶와 泥質灰陶로 兩分되며 동일 墓地에서 함께 출토되고 있다. 전체적인 출토수량으로 볼 때, 초기단계에서는 砂質紅褐陶가 우세한 반면 후기에는 泥質灰陶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砂質紅褐陶는 鼓腹罐이 대표적인 器形이며, 일부 壺, 鉢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葫蘆溝, 白廟, 梨樹溝門墓地에서 출토된 雙耳罐과 三足雙耳罐은 다른 지역에서는 少見되는 지역적 특징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 한편 梨樹溝門墓地에서 출토되는 雙耳壺, 雙耳罐, 鉢 등은 遼西지역의 喀左 園林處석관묘(傅宗德陳莉, 1988)에서도 유사한 형태들이 발견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泥質灰陶는 주로 折肩罐, 高領壺, 高柄豆 등이 대표적인 器形이며 泥質灰陶만이 출토되는 白廟墓地第四類型的 甗, 壺, 簋, 單耳杯는 戰國시기로 편년되는 燕下都 13號, 22號유적(河北省文物局, 1965)에서 출토되는 동일 기형과 매우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泥質灰陶系統이 戰國燕과의 영향관계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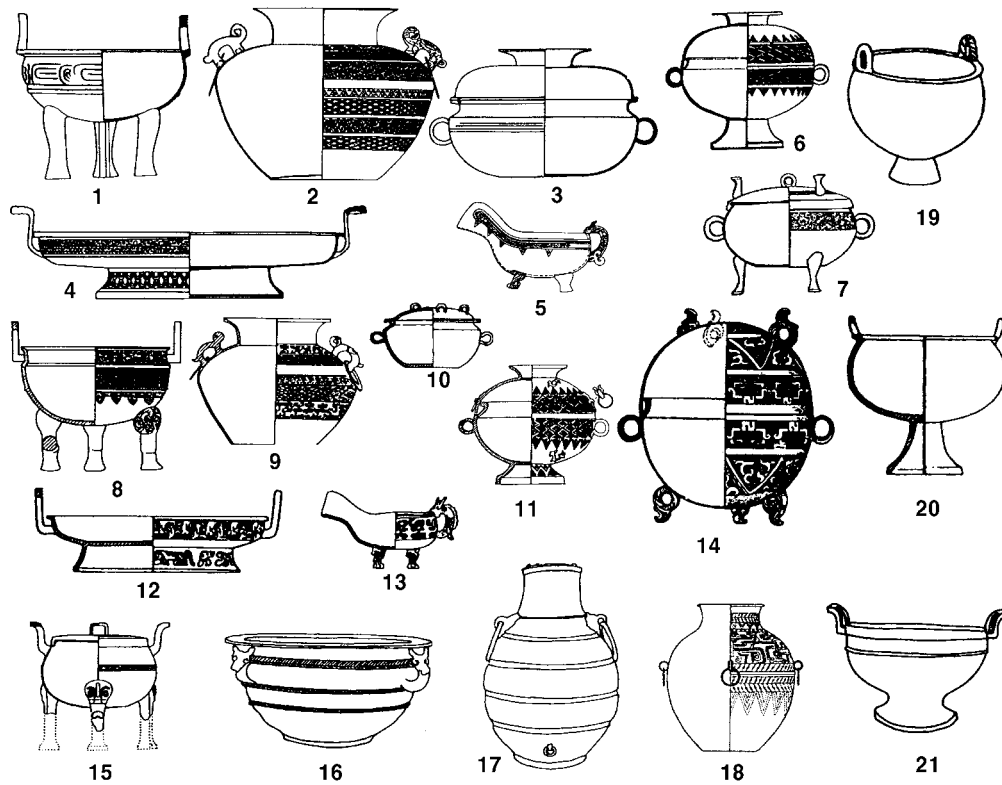
5) 夏家店上層文化에 속하는 內蒙古敖漢旗周家地墓地(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84)에서 覆面習俗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그림 2> 玉皇廟文化출토 토기와 주변지역과의 비교

<p>玉皇廟文化</p>	 <p>1~3, 5.玉皇廟 4.葫蘆溝 6.梨樹溝門 7, 8.白廟</p>
<p>毛慶溝文化</p>	 <p>9~11.毛慶溝 12, 13.崞縣窯子</p>
<p>桃紅巴拉文化</p>	 <p>14. 明安木獨 15, 16.桃紅巴拉 17.西溝畔</p>
<p>夏家店上層文化</p>	 <p>18, 24.山灣子 19.大井 20.紅山后 21, 23.大泡子 22.周家地</p>
<p>喀左園林處墓</p>	

(2) 靑銅容器(그림 3)

靑銅容器는 주로 玉皇廟, 西梁堖, 龍慶峽, 甘子堡, 北辛堡, 炮臺山墓地를 중심으로 軍都山南麓의 懷來-延慶盆地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鼎, 壺, 鬲, 敦, 盤, 匜 등으로 대표되는 中原式靑銅器와 銅鍍과 獸耳三足杯 등의 北方系靑銅器로 대별할 수 있다. 中原式靑銅용기는 器種에 따라 飲器, 食器, 酒器, 水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로 水器와 酒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飲器나 食器를 위주로 하는 中원지역靑銅용기의 조합 관계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靳楓毅, 2001). 이러한 中原式靑銅容器는 玉皇廟文化의 전체 지역에서 全時期에 걸쳐 지속적 발견되고 있어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中원문화와 영향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북방계靑동기문화와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玉皇廟文化출토靑銅용기

1~5.玉皇廟 6.西梁堖 7.龍慶峽 8~13.甘子堡 14.炮臺山 15~18.北辛堡
19~21.銅鍍(玉皇廟, 甘子堡, 北辛堡)

(3) 青銅武器(그림 4)

청동무기류는 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유물로 銅劍과 青銅刀의 다양한 형식을 통하여 주변 청동기문화와의 多元的인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銅劍은 크게 “雙環首短劍”, “圓餅形首短劍”, “秦式劍”의 3가지 계통으로 구별할 수 있다. 먼저 “雙環首短劍”의 경우 인접한 오르도스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대표적인 북방계청동기로 옥황묘문화의 대부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劍柄과 劍首의 다양한 동물장식이 특징적이다. 劍柄의 兩面에는 다양한 동물문과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劍首部에도 兩面透彫技法으로 虎, 熊, 鹿, 羊, 蛇 등의 동물문양들이 사실적으로 장식되어 있다. 圓餅形首短劍은 주로 소백양, 백묘, 북신보, 이수구문묘지를 비롯한 후기 단계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劍身은 중원식동검의 형태와 유사하며 대부분 扁莖이다. 이러한 圓餅形首短劍은 하가점상층문화의 대표적인 銅劍형식인 鑿柄式銅劍이 중원식동검의 영향으로 발전한 형식으로 보고 있다(林法, 1993). 秦式劍(花格劍)은 전형적인 中原式銅劍으로 炮臺山墓地와 이수구문묘지를 비롯한 옥황묘문화의 후기 단계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편 駱駝梁M8에서 발견된 銅劍은 劍身이 曲刀형태를 하고 있으며 寧城南山根에서 발견된 예와 유사한 점으로 볼 때 夏家店上層文化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青銅刀은 대체로 齒柄刀, 環首刀, 削刀로 구분할 수 있다. 齒柄刀는 柄部하단에 凸齒가 있는 것으로 소백양, 이수구문, 낙타량묘지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대체로 하가점상층문화지역과 인접한 옥황묘문화의 북부지역에서 출토되는데 비해 남부의 懷來-延慶盆地에서는 비교적 少見된다⁶⁾. 環首刀는 춘추전국시대의 전 시기를 걸쳐 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대표적인 북방계청동기이다. 특히 單圓孔刀는 圓形의 구멍이 있는 것으로 이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소백양에서 발견되는 예는 柄部에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다. 削刀는 가장 많은 출토되는 형식으로 대체로 환수도가 중원계 문화요소의 영향으로 발생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削刀는 刀身이 좁고 긴 형태의 細削刀와 刀身이 넓고 짧은 형태의 寬削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소백양M44에서 발견된 예와 같이 세삭도는 주로 초기에 속하는 蛇斗雙環首劍과 공반되고 있고 관삭도는 후기의 雙環首分離劍과 공반되는 것으로 볼 때 대체로 細削刀에서 寬削刀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楊建華, 2000).

銅戈는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중원계유물이며 감자보, 옥황묘, 서양광, 이수구문, 포대산, 북신보 등의 전 지역에 걸쳐 모두 17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옥황묘 M32에서 발

6) 주가지묘지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형식의 치병도는 출토당시 대체로 병부에서 목질의 도병흔적이 함께 발견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목제의 도병을 끈으로 도자와 결박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刀部와 柄部가 함께 주조되는 북방계도자의 구조와는 상이한 이러한 치병도는 대체로 하가점상층문화의 특징적인 유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아마도 유입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 玉皇廟文化출토 청동무기와 주변지역과의 비교

	張家口地區	懷來-延慶盆地, 灤平地區
<p>玉皇廟文化</p>  <p>1-12.小白陽</p>	 <p>13,14,16,26,27,34.玉皇廟 15,20,29.龍慶峽 7,23,24,28,32,33,35.梨樹溝門 18,37.北辛堡 19,25,31.甘子堡 21.三道營 22.下旬 30.荷子溝 36.炮臺山</p>	
<p>毛慶溝文化</p>  <p>1-6.毛慶溝墓地(5.鐵劍)</p>	<p>桃紅巴拉文化</p>  <p>7,10.公蘇壕 8,12.西溝畔 9.呼魯斯太 11.寶亥社墓</p>	
<p>夏家店上層文化</p> 	<p>1.孫家溝M7371 2,4,7,12,13.小黑石溝 3.山灣子 5,8,14.南山根 6.天巨泉 9.水泉城子M7801 10.周家地 11.大泡子 15.石砬山M741</p>	

견된 銅戈의 형식은 春秋前期의 대표적 銅戈형식으로 편년되는 上村嶺M1721(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출토 銅戈와 일치하고 있어 이 지역 출토 銅戈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고 있다. 또한 銅戈는 秦式劍이나 削刀등이 주로 옥황묘문화 후기부터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것과는 달리 전 지역에서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가장 먼저 받아들인 중원계 문화요소로 볼 수 있다.

(4) 裝飾品(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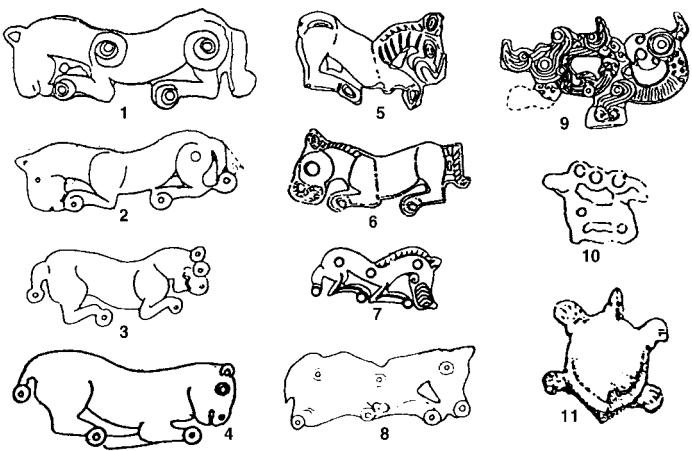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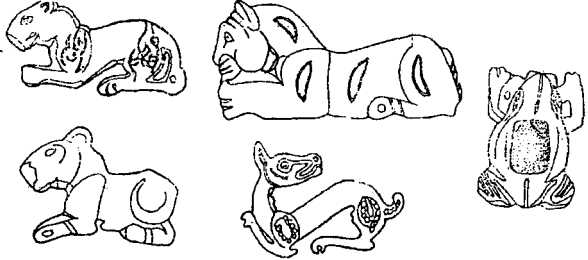
裝飾品은 주로 帶鉤, 動物牌飾, 耳環, 泡飾, 珠飾 등이 발견되고 있으며, 대부분 腰部以上에서 散在하고 있어 장식품이 腰部에 집중되어 있는 내몽고 동남부지역과는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장식품 가운데 이 지역의 문화적 특징과 지역성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는 靑銅帶鉤와 각 종 動物牌飾을 들 수 있다. 靑銅帶鉤에는 주로 馬, 羊, 鹿, 鳥, 獸形의 사실적 동물장식이 다양한 형태로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帶鉤는 일반적으로 각 종 動物紋帶飾과 함께 주로 男性피장자의 허리부위에서 발견되고 있다.

動物牌飾은 대부분 馬, 虎, 犬, 鹿등의 사실적인 동물형상을 題材로 하였으며, 형태는 주로 蹲踞式의 單體動物을 기본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오르도스지역의 動物牌飾이 주로 立式이나 多體動物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동물장식은 주로 馬形과 虎形위주이며 甘子堡, 龍慶峽, 玉皇廟등지에서는 金製의 호형마형패식도 발견되고 있어 피장자의 특수한 신분을 반영해 주고 있다. 동물패식은 주로 半浮彫技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牌飾의 뒷면에는 두개의 고리를 만들어 衣服등에 편리하게 부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제작기법에 있어서 牌飾에 장식되어 있는 馬과 虎의 눈, 다리 및 꼬리의 끝부분에는 綠松石들을 象嵌하기 위한 여러 개의 구멍들을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5) 車馬具

銅車馬具는 옥황묘, 서양광, 감자보, 포대산, 복신보묘지를 중심으로 懷來-延慶盆地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주로 대형무덤에서 발견된다. 車馬具는 주로 轄, 銜, 鑣, 節約 등이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복신보M1, M2에서 191점이 출토된 예를 제외하면 개별 묘지에서 출토된 종류는 대체로 간단하며 수량도 비교적 少量이다. 특히 복신보의 경우에는 車轄, 車篷架管, 杆首飾, 合頁, 銅環, 車輪, 盖弓帽 등의 車具세트가 모두 출토되고 있어 피장자의 특수한 신분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馬銜은 옥황묘에서 발견된 예와 같이 다양한 형식이 발견되고 있어 시기적인 변화양상이 뚜렷하여 편년설정에 있어 중요한

<그림 5> 玉皇廟文化출토 動物牌飾과 주변지역과의 비교

<p>玉皇廟文化</p>	 <p>1.玉皇廟 2.7.小白陽 3.苧子溝78M18 4.苧子溝76M16 5,6,9.龍慶峽 8.梨樹溝門 10,11.甘子堡</p>
<p>毛慶溝文化</p>	 <p>12,13.毛慶溝 14.范家窯子 15.崞縣窯子</p>
<p>凌源三官甸子</p>	
<p>凌源五道河子</p>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馬銜의 형식변화는 주로 양 끝의 고리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初期에는 單環孔으로 평면형태는 “口”字形인 반면 中期에는 雙環孔의 “凸”字形으로 변화하며, 後期에는 雙環孔의 “呂”字形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靳楓毅, 2001). 馬鏃의 동물장식은 이 지역 馬具의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馬頭形과 豹形銅鏃이 대표적인 형식이다.

IV. 年 代

上述한 옥황묘문화의 墓制와 葬俗 및 출토유물에 분석을 통해 墓制와 葬俗에 반영된 일반적 특징과 함께 출토유물에서 확인되는 지역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옥황묘문화의 상이한 지역적 차이는 대체로 인접한 주변 청동기문화와의 지속적인 다원적 영향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본문에서는 이러한 옥황묘문화의 지역적 차이를 근거로 하여 2개의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옥황묘문화단계의 하북성 북부지역 청동기문화를 먼저 張家口地區를 중심으로 하는 小白陽類型과 懷來-延慶盆地를 중심으로 灤平, 隆化지역을 포함하는 梨樹溝門類型으로 대별하고 출토유물 가운데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이 가능한 中原系 청동용기를 중심으로 해당 유적의 年代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⁷⁾.

梨樹溝門類型으로 분류되는 대표적 유적으로는 玉皇廟, 西梁堯, 葫蘆溝, 龍慶峽, 甘子堡, 北辛堡, 梨樹溝門, 炮臺山유적 등이 있다. 梨樹溝門類型은 燕國을 비롯한 중원문화와 하가점상층문화의 영향이 뚜렷하게 발견되는데, 특히 중원문화의 영향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靑銅容器와 銅戈, 車馬具, 銅劍, 土器의 順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玉皇廟墓地的 年代와 관련하여 먼저 주목되는 것은 靑銅容器와 銅戈 등의 형식이다. 玉皇廟M2에서 출토된 銅匣는 전형적인 春秋前期의 형식으로 중원지역의 中州路M2415(中國科

7) 옥황묘문화에 존재하는 지역적 차이에 대해서는 楊建華(2000, 2003)에 의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양건화는 이미 『冀北周代靑銅文化初探』에서 옥황묘문화를 張家口地區를 중심으로 하는 西部유형과 懷來, 延慶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中部유형 및 灤平, 隆化를 중심으로 하는 東部유형으로 세분한 바 있고 최근 『東周時期中國北方文化帶形成初探』에서는 懷來, 延慶, 張家口地區를 西部유형, 灤平, 隆化지역을 東部유형으로 兩分하고 있다. 필자는 옥황묘문화의 분포지역에 지역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楊建華의 문제제기에는 동의하지만 옥황묘문화와 하가점상층문화 및 오르도스청동기문화, 燕문화와의 영향관계를 도식적으로 대입하여 옥황묘문화를 3개의 지역유형으로 분할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주변 청동기문화와의 영향관계만을 주목함으로써 옥황묘문화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과 계기적 발전과정을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논지는 “拿來主義”로 표현하였던 靳楓毅(2001)의 논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중원계청동기와 북방계청동기가 공반되는 懷來-延慶盆地와 灤平, 隆化지역을 내몽고 동남부의 하가점상층문화를 계승발전한 옥황묘문화의 중심지역인 東部유형으로 설정하고 張家口地區를 오르도스청동기문화와의 친연성이 강한 西部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學院考古研究所, 1959a), 上村嶺M1761, M1602(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b)에서 발견된 예와 유사하며 重環紋이 시문되어 있는 銅鼎의 형식은 芮城M1(山西省考古研究所, 1987)에서 출토된 예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M32에서 출토된 銅戈의 형식은 上村嶺M1721에서 출토된 예와 같이 三穿에 刃部가 圭形인 春秋前期의 銅戈형식을 하고 있는 점에서 인접한 M2와 동일 시기로 편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중원지역 청동기 편년을 기준으로 볼 때 中州路M2415와 芮城M1의 년대는 대체로 春秋前期로 편년되는 유적으로 옥황묘M2, M32의 년대를 春秋前期로 편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옥황묘M18에서 출토된 銅敦의 경우에는 尉氏河東周村(鄭州市博物館, 1982)과 琉璃閣M59(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c), 上村嶺M11, M1에서 발견된 동일 기종의 형식과 유사하며 옥황묘M250의 銅戈형식도 中州路M4, M6에서 출토된 형식과 일치하고 있어 중원지역 청동기편년을 기준으로 볼 때 春秋中期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玉皇廟墓地的 연대는 青銅容器와 銅戈의 형식을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중원지역의 春秋前中期로 편년할 수 있다.

西梁堯의 경우 M1에서 출토된 銅豆는 侯馬上馬村M15와 M4006(山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63)에서 출토된 형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上馬村M15와 M4006은 대체로 春秋後기로 편년되고 있다.

龍慶峽의 경우 M30에서 출토된 銅鼎은 賈各莊M28(安志敏, 1953)에서 출토된 형식과 일치하며 賈各莊M28은 春秋後期에서 戰國早期로 편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軍都山일대에서 발견되는 옥황묘문화의 연대는 전체적으로 보아 대체로 춘추시기의 전체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甘子堡의 연대와 관련하여 먼저 M1과 M2에서 출토된 銅匜와 銅甬의 형식이 주목된다. 이러한 형식은 옥황묘M2에서 발견된 동일 기종과 유사한 형식으로 春秋初期로 편년할 수 있다. 반면 1957년 甘子堡村에 발견된 청동예기(鼎, 甬, 孟姬匜)의 형식들은 대체로 이 보다 늦은 시기에 속하는 형식인 점을 고려할 때 甘子堡墓地的 下限연대는 春秋後期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北辛堡에서는 M1에서 銅鼎, 銅壺, 銅鑑 등의 청동용기들이 발견되었으며 銅鼎의 경우 龍灣屯에서 출토된 銅鼎의 형식과 유사하고 銅壺는 中州路M2717, 渾源李峪(李夏廷, 1992)에서 출토된 형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中州路M2717, 龍灣屯(程長新, 1985a), 李峪 등이 대체로 편년되는 戰國初期로 설정할 수 있다.

灤平, 隆化지역의 梨樹溝門墓地的 경우 M5에서 출토된 銅戈 2점은 龍灣屯출토 銅戈와 유사하며 L1716銅戈는 賈各莊M6에서 출토된 예와 유사하므로 대체로 春秋後期の 늦은 시기 혹은 春秋戰國 교체기로 편년할 수 있다.

炮臺山墓地的 경우 M89에서 출토된 銅敦은 전형적인 燕式系 청동기로 中趙甫(程長新, 1985b)에서 출토된 예와 器形과 文樣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어 戰國初期로 편년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대표적 유적으로는 小白陽, 白廟墓지를 들 수 있다. 서부유형은 주로 오르도스청동기문화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雙耳罐, 小銅管 등이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청동용기와 동과를 비롯한 중원계청동기와 車馬具는 발견되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小白陽의 경우 M37에서 발견된 銅劍의 형태가 甘子堡M11과 葫蘆溝M35에서 출토된 예와 형식과 문양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어 대체로 春秋中期로 편년할 수 있다.

白廟墓지의 경우 白廟三類(M2, M3, M20, M23)에 속하는 무덤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M2에서 출토된 雙耳罐은 崞縣窯子M5와 毛慶溝M42에서 출토된 형식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대체로 春秋後期에서 戰國初期로 편년할 수 있다.(표 3)

<표 3> 옥황묘문화유적의 년대

	I	II	III	IV
	春秋前期 (B.C 770~650)	春秋中期 (B.C 650~550)	春秋後期 (B.C 550~453)	戰國初期 (B.C 453~380)
玉皇廟	-----			
葫蘆溝		-----		
西梁堖			-----	
龍慶峽			-----	
甘子堡	-----			
北辛堡			-----	
梨樹溝門			-----	
炮臺山			-----	
小白陽		-----		
白廟			-----	

以上에서 진행한 각 유적의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옥황묘문화의 년대를 上記한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표 3). 上記한 표를 통해 옥황묘문화는 대체로 춘추전기에서 전국 초기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軍都山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懷來-延慶盆지가 중심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V. 맺음말

옥황묘문화에서 발견되는 출토유물의 다양한 특징들을 통하여 이들이 주변 청동기문화와 영향관계에서 출현하게 되었음을 이미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내몽고 동남부의 하가점상층문화와 오르도스청동기문화 및 燕國系중원문화와의 다원적인 형태의 영향관계는 옥황묘문화의 성격과 계기적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옥황묘문화에서 발견되는 주변 청동기문화의 특징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相似性에만 주목하여 河北省北部지역의 청동기문화를 독립적인 문화유형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夏家店上層文化”에 歸屬하거나 혹은 “오르도스청동기문화”의 지방유형으로 인식하는 견해들이 주로 제기되었다⁸⁾.

그러나 上述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 지역은 실제로는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가진 독자적인 문화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상징적 형태의 石槨이 결부된 竪穴式土壙墓, 狗와 牛 위주의 動物殉葬과 覆面葬俗, 短頸鼓腹罐, 三足雙耳罐, 圓餅形首短劍, 다량의 中原系靑銅容器와 銅戈 및 車馬具의 공반현상, 虎形馬形動物牌飾등으로 대표되는 특징들은 주변지역 북방계청동기문화와는 구별되는 옥황묘문화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옥황묘문화는 이러한 고유한 특징과 아울러 주변 청동기문화와 다양한 형태의 영향관계를 통하여 상당히 다원적인 문화요소들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하가점상층문화와의 영향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齒柄刀, 鏃柄式銅劍 등이 주로 옥황묘문화의 초기단계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요소들은 대체로 하가점상층문화의 후기단계에 속하는 형식으로 옥황묘문화의 초기단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옥황묘문화에서 주로 발견되는 圓餅形首短劍, 銅管, 帶鉤, 虎形牌飾 등은 하가점상층문화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두 지역간의 시기적인 선후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燕國系중원문화와의 영향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는 靑銅容器, 車馬具, 銅戈, 秦式劍, 削刀, 燕式土器 등이 있으며 주로 옥황묘문화의 全 단계에 걸쳐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중원문화요소들은 대체로 軍都山을 중심으로 懷來-延慶盆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8) 이와 같이 “오르도스청동기문화”라는 母體에서 분화되어 나가는 과정으로써 주변 청동기문화를 설정하며 이해하였던 중국학계의 기존 관념에 대한 최초의 비판은 林沄(1993)에 의해 제기되었다. 林沄은 기존 중국학계의 북방지역 청동기문화연구가 오르도스청동기문화와 주변의 유사한 북방계청동기문화를 “匈奴聯盟”의 고고학적 실체로 인식하고 동일 族屬의 다양한 分枝로 이해하는 견해는 “史記”에 의해 제시된 하나의 역사상에 불과 한 것이라고 문제제기하면서 이 지역의 고고학적 연구는 이러한 선험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중원문화의 영향은 오르도스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청동기문화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 옥황묘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르도스청동기문화와의 영향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는 雙環首劍, 動物牌飾, 銅管, 帶扣, 雙耳罐 등이 발견되는데, 주로 張家口地區를 비롯한 옥황묘문화의 후기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요소들은 대체로 崞縣窯子和 毛慶溝基地의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는 형태로 두 지역간의 시기적인 선후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결국 옥황묘문화는 지역적으로 혹은 시기적으로 인접한 주변의 夏家店上層文化와 오르도스청동문화 사이에 설정할 수 있으며, 墓制와 葬俗 및 출토유물에 반영된 고유한 문화적 특징과 아울러 주변문화와의 다원적인 영향관계를 통하여 계기적으로 발전하면서 戰國中期이후 燕文化에 의해 대체된다.

참 고 문 헌

韓 文

- 강인욱, 2004, 「기원전 8~3세기 중국 북방 초원지대의 동검문화」, 『동북아시아의 초기금속기문화』, 한국상고사학회.
- 吳江原, 1997, 「冀北地域 有柄式青銅短劍과 그 文化에 관한 研究」, 『한국 古代의 考古와 歷史』, 학연문화사.
- 2004, 「中國 東北地域 세 青銅短劍 文化間의 交涉關係와 樣相」, 『선사와 고대』
- 李鍾宣, 1989, 「오르도스 후기금속문화와 한국의 철기문화」, 『한국상고사학보』 4.
- 정석배, 1995, 「청동, 철기시대 중국북방의 단검」, 『한국고고학보』 32.

中 文

- 安志敏, 1953, 「河北省唐山市賈各莊發掘報告」, 『考古學報』 第六冊.
- 北京市文物工作隊, 1962, 「北京懷柔城北東周兩漢墓葬」, 『考古』 5.
- 北京市文物研究所, 1989, 「北京延慶軍都山東周山戎部落墓地發掘紀略」, 『文物』 3.
- 1990, 『北京考古四十年』, 北京燕山出版社.
- 1994, 「龍慶峽別墅工程發現的春秋時期墓葬」, 『北京文物與考古』 4輯.
- 程長新, 1985a, 「北京順義縣龍灣屯出土一組戰國青銅器」, 『考古』 4.

- 1985b, 「北京市通縣中趙甫出土一組戰國青銅器」, 『考古』 8.
- 佟柱臣, 1992, 「在《北京東周山戎文化考古成果研討會》上的發言」, 『北京文物與考古』 3輯.
- 傅宗德·陳莉, 1988, 「遼寧喀左縣出土戰國器物」, 『考古』 7.
- 高明, 1981, 「中原地區東周時代青銅禮器研究(上·中·下)」, 『考古與文物』 1, 3, 4.
- 宮本一夫, 2001, 「鄂爾多斯青銅文化的地域性及變遷」, 『岱海考古』, 科學出版社.
- 韓嘉谷, 1991, 「長城地帶青銅短劍的考古學文化和族屬」, 『中國考古學會第八次年會論文集』.
- 1994, 「從軍都山東周墓談山戎、胡、東胡的考古學文化歸屬」, 『內蒙古文物考古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河北省文物局文物工作隊, 1965, 「燕下都第22號遺址發掘報告」, 『考古』 11.
- 1966, 「河北懷來北辛堡戰國墓」, 『考古』 5.
- 河北省文物研究所, 1983, 「灤平縣虎什哈炮臺山戎墓地的發掘」, 『文物資料叢刊』 7.
- 賀勇·劉建中, 1993, 「河北懷來甘子堡發現的青銅墓群」, 『文物春秋』 2.
- 靳楓毅, 1991, 「軍都山戎文化墓地葬制與主要器物特征」, 『遼海文物學刊』 1.
- 2001, 「山戎文化所含燕與中原文化因素之分析」, 『考古學報』 1.
- 2001, 「軍都山玉皇廟墓地的特征及其族屬問題」, 『蘇秉琦與當代中國考古學』, 科學出版社.
- 遼寧省博物館, 1977, 「遼寧喀左南洞溝石槨墓」, 『考古』 6.
- 1985, 「遼寧凌源縣三官甸子青銅短劍墓」, 『考古』 2.
- 李夏廷, 1992, 「渾源彝器研究」, 『文物』 10.
- 林沅, 1993, 「關於中國的對匈奴族源的考古學研究」, 『內蒙古文物考古』 1,2合刊.
- 1995, 「東胡與山戎的考古探索」, 『環渤海考古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知識出版社.
- 2003, 「中國北方長城地帶游牧文化帶的形成過程」, 『燕京學報』 14.
- 灤平縣文管所, 1994, 「河北灤平縣梨樹溝門墓葬清理發掘簡報」, 『文物春秋』 2.
- 灤平縣博物館, 1995, 「河北省灤平縣梨樹溝門山戎墓地清理簡報」, 『考古與文物』 5.
-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1989, 「涼城崞縣窯子墓地」, 『考古學報』 1.
- 山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63, 「山西侯馬上馬村東周墓葬」, 『考古』 5.
- 山西省考古研究所, 1987, 「山西芮城東周墓」, 『文物』 12.
- 1994, 「上馬墓地」, 文物出版社.
- 田廣金·郭素新, 1986, 「鄂爾多斯青銅器」, 文物出版社.
- 1988, 「鄂爾多斯式青銅器的淵源」, 『考古』 3.
- 田廣金, 1997, 「中國北方系青銅器文化和類型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 4.
- 烏恩, 1985, 「殷至周初的北方青銅器」, 『考古學報』 2.

- 楊建華, 2000, 「冀北周代青銅文化初探」, 『中原文物』 5.
2002, 「東周時期北方系青銅文化墓葬習俗比較」, 『邊疆考古研究』 1.
2003a, 「再論玉皇廟文化」, 『邊疆考古研究』 2.
2003b, 「東周時期中國北方文化帶形成初探」, 『燕京學報』 14.
- 張家口市文管所, 1985, 「張家口市白廟遺址清理簡報」, 『文物』 10.
1987, 「河北宣化縣小白陽墓地發掘報告」, 『文物』 5.
- 鄭君雷, 2001, 「戰國時期燕墓陶器的初步分析」, 『考古學報』 3.
- 鄭紹宗, 1984, 「中國北方式青銅短劍的分期及形制研究」, 『文物』 2.
- 鄭州市博物館, 1982, 「尉氏出土一批春秋時期銅器」, 『中原文物』 4.
- 朱鳳翰, 1995, 『古代中國青銅器』, 南開大學出版社.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a, 「上村嶺虢國墓地」, 科學出版社.
1959b, 「洛陽中州路」, 科學出版社.
1959c, 「山彪鎮琉璃閣」, 科學出版社.
1975, 「寧城南山根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1.
1984, 「內蒙古敖漢旗周家地墓地發掘簡報」, 『考古』 5.

日 文

- 三宅俊彦, 1999, 『中國古代北方系青銅器文化の研究』, 國學院大學大學院研究叢書.

A Study of the Yuhuangmiao culture of the mountain area of northern Hebei in China

Jeong, Dae-Young

The Yan mountain area of the northern part of Hebei province and its local neighbor area is categorized main-distribution area of the northern bronze culture of the Eastern Zhou period(770bc~221bc). Recently, it was discovered the concrete character of the culture by a large scale excavation of the Yuhuangmiao cemetery at Jundu mountain. In the chinese scholarship, the cultural character of this area has established the independent cultural type that is distinguished from the Bronze culture of existing.

In this paper, I have as a target of analysis remains relate to the Yuhuangmiao culture of the mountain area of northern Hebei in the Eastern Zhou period. And I would like to judge about diverse influential relationships of the character of the Yuhuangmiao culture and the Bronze culture, especially burials, burial customs and the characters of the excavated article. In particular, diverse influential relationships of the upper Xiajiadian culture Ordos bronze culture and The Central Plains cultural from The Yan state have a important meaning to understand about the character of the Yuhuangmiao culture and the beginning development process.

Ultimately, it is peculiar characters of the Yuhuangmiao culture that a shaft gave with stone compartment protecting a coffin as a symbolic form, mask-burial customs such as mainly burials of the living with the dead dogs, a drum shaped jar, a tripod jar with two handles, a short bronze sword with circle hilt, Central Plains cultural bronze containers, bronze halberd and horse-shaped accessories of cartage-horse trapping are distinguished from a local neighbor, the bronze culture from northern.

The territory of time-space of The Yuhuangmiao culture can be dominately

recognized between the upper Xiajiadian culture and Ordos bronze culture. It is the Yan culture after the middle Warring States Period considering with the peculiar characters which reflected by burials and burial customs and diverse influential relationships with peripheral cultures.

keyword : cultural character, The Yuhuangmiao culture, death with animal's lord, mask-burial customs, animal style accessories, northern bronze culture